

바다를 가슴에 품고 독도를 알리다!

접 수 번 호	중등 45
학 교 명	성포중학교
동아리(팀)명	독도사랑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우리 동아리는 독도를 늘 가까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뜻으로 '독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아리 활동이 독도에 대한 지식 이해에 그쳤다면, 올해는 '배워서 남주자!'는 목표로 우리가 알게 된 독도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부원들이 독도에 다녀오거나, 독도 박물관, 독도 체험관을 다녀오기에는 거제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힘들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독도 홍보대사가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정태수	3	독도 지식 전달 및 UCC 제작 주도
2	이가영	3	독도 지식 전달 및 UCC 제작 참여
3	이지민	3	체험활동 학습지 제작 참여
4	김주현	2	<월간독도> 주제 선정
5	김성민	1	<월간독도> 주제 선정 및 조사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바다를 가슴에 품고 독도를 알리다!

- 주제 선정 이유 : 남해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독도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 활동 기간 : 2018. 5. 2. ~ 2018. 8. 9.

○ 추진 방법 : 1. 독도사랑 현장 체험학습 참가 및 후기 나눔.

2. 교내 학생들에게 독도 지식 매 달 알리기.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8. 5. 12. ~ 5.14.	2018.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 참가 (3학년 정태수, 이가영)	울릉도 및 독도 일원	거제시에서 주최하는 2018.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에 참가하여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문화 활동으로 독도사랑, 나라사랑 의식의 내면화를 도모한다.
2018. 6. 12.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 후기 나눔	교내	2018.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녀온 소감 및 생생한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8. 7. 7.	독도사랑 체험활동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중인 독도 관련 자료들을 직접 관람하고 온다.
2018. 7. 셋째주	교내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교내	독도 홍보 및 독도사랑 실천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교내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독도사랑 동아리 부원들 모두 참가한다.
2018. 1학기	교내 게시판 <월간 독도> 신문 게시	교내 게시판	매달 주제를 선정하여 <월간 독도> 신문을 게시하여 전교생들의 독도사랑 의식 내면화 및 지식을 전달한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독도사랑 활동 자료집	PDF	독도사랑 100일간의 활동 내용
2	독도사랑 활동 ucc	ucc	독도사랑 활동 정리 ucc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학교 게시판 매달 독도 정보 게시
- 동아리 부원 2018. 독도 체험활동 참가
-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독도 관련 체험활동 참가

○ 향후 계획

- 2학기 매달 독도 관련 도서 선정 및 감상 활동
- 2학기 9월 교내 학생들 대상 독도 인식조사 및 독도 캠페인

- 2학기 10월 독도주간, 거제 시내 '독도 지킴이' 활동
- 2학기 매달 한 번, 교내 도서관에서 1일 독도교사 체험 활동
-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영어로 편지 쓰기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정태수	<p>거제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2018.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에 전교회장 자격으로 학교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의 독도가 아주 소중한 귀한 곳 이었다고 느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울릉도 사람들의 넉넉한 민심은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2박 3일 동안 정말 귀중하고 알찬 경험을 해서 좋았다. 특히 행남 산책로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갯바위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기도 하고, 몽돌을 쌓아 돌탑도 만들었다. 또, 산길을 걸으뎡 촛대바위도 보았다. 그리고 죽도에 가는 길에 갈매기한테 새우깡도 주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기억에 남는다. 배가 많이 흔들렸지만, 울릉도에 가서 큰 개도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 사진도 찍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또 한 번 가고 싶다. 아, 울릉도 오징어는 정말 비쌌다. 울릉도 호박엿을 선물용으로 추천한다.</p> <p>UCC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때 그 때 했던 활동들이 많이 생각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고 유익한 추억이 된 것 같아 즐거웠다.</p>
이가영	<p>독도사랑 동아리 부원이라는 점 덕분에 가보지 못한 독도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각 학교당 대표학생 한 명만 거제시 교육청에서 독도 체험활동을 보내 주는데, 우리 학교가 2018. 독도지킴이학교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명이 더 갈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좋은 기회로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p> <p>거제시 관내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먼저 울릉도를 갔는데, 여러 곳을 다니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독도박물관에서 독도에 대해 많은 정보와 다양한 측면에서 독도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독도에 생각을 조를 정해 표현한 뒤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나의 생각도 전달하고 토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거북이 바위도 보게 되었는데, 그 위에 갈매기가 품을 잡으며 앉아 있어서 크게 기억에 남는다. 이 외에도 많은 곳을 가보았다. 그리고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독도를 갔는데, 파도가 거세서 아쉽게도 발을 못 디뎡다. 그래도 가까이서 독도를 볼 수 있어서 매우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p> <p>그렇게 체험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서 독도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뿐만 아니라 태수도 함께 동아리 부원들에게 내가 보고 겪은 독도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교내에서 이루어진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독도에 다녀온 지 얼마 안되어 생생하게 독도에 관해 쓸 수 있었고, 독도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따로 국립해양 박물관에 가게 되었는데 전시가 되어 있는 독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내 게시판에 매달 주제를 정하여 <월간 독도> 신문을 게시하여 전교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지식과 독도에 대한 의식을 내면화 시키는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p>
이지민	<p>교내에서 실시한 독도 사랑 현장 탐방 체험학습 후기를 들으며 마치 내가 독도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았고, 특히 정태수 학생이 들려준 거북이 바위가 기억에 남았다. 독도에 다녀온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독도에 너무 가보고 싶</p>

	<p>었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에 가서 독도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안용복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안용복 선생님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소중함이 느껴졌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왜 독도가 우리땅이냐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진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 참가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인지 더 좋은 글이 써진 것 같았다. 교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월간 독도>를 보면서 교내 학생들이 오며 가며 독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독도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어 뜻깊었고, 동아리 부원 외 다른 친구들도 독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김주현	<p>국립해양박물관에서의 독도 체험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 독도에 관한 이야기, 유물을 알게 되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주어진 학습활동지의 빈 칸을 채우는 미션 활동을 통해 더욱 독도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국립해양박물관에는 독도에 관한 자료, 유물이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포항이나 동해까지 가기 힘든 부산, 경남의 관람자들을 위해서 해양박물관 안에 독도 전용관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독도 동아리원으로서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p>
김성민	<p>국립해양박물관은 가봤던 곳이었지만 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가니 더 많은 것이 보이고 흥미로웠다. 특히나 독도의 이름이 붙은 함선이 존재하는 지도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 체험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께 감사했던 점은 학습지 채우기 활동을 하는데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학습지를 채우도록 풀어놔 주신 점이였다. 그 덕분에 1층부터 3층까지 꼼꼼하게, 내가 더 관심 있는 전시관을 더 오랫동안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공부도 예습 후 하는 공부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과 같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토요일이었지만 부산까지 체험활동을 가고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올 수 있어 중학교 생활에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서 즐거웠다.</p>

5. 건의사항

- 독도체험 발표대회 참가 기간에 '독도의 날' 주간을 포함했으면 좋겠다.